

평창군시설관리공단, 호국보훈의 달 맞아 환경정화 활동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5.06.04 13:59



평창읍 현충탑 인근 환경정화 활동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호국보훈의 달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4일 평창읍 현충탑 인근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이번 활동은 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철학 실천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의미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정화 활동은 오전 10시부터 약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공단 임직원 18명이 참여해 현충탑 주변과 인근 산책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무단투기 폐기물을 분리·정리했다. 특히 플라스틱과 비닐류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최순철 이사장은 “이번 활동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의 모범이 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창읍 현충탑 인근 환경정화 활동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